

구인두 편평세포암종의 경부림프절 전이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최 은 창 · 김 철 호

목 적 : 구인두 편평세포암종은 경부림프절로의 전이가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관한 국내보고는 미진한 상태로 저자들은 조직병리학적으로 확인한 경부림프절 전이의 빈도와 유형을 보고하고자 한다.

방 법 : 1992년부터 2000년까지 구인두 편평세포암으로 수술을 일차치료로 시행한 63례를 대상으로 원발병소의 치료와 동측 혹은 양측의 경부청소술을 시행하였다. 적출된 경부청소술의 시료는 각 level별로 절제하여 조직병리검사 시행하여 각 level 별로 림프절의 갯수와 전이림프절 유무를 검사하였다.

결 과 : 전체적인 림프절 전이는 76.2%였고 cN0 19례

중 6례에서 림프절전이가 확인되었으며(잠재전이율) cN+ 44례중 42례에서 림프절전이가 확인되어 위양성율은 4.5%였다. 원발부위별 림프절전이율에서 설근부와 구개편도의 암종에서는 80%가 넘었으며 림프절 전이는 주로 level II, III, IV에서 확인되었고 level I, V는 타 부위의 전이가 있을 때 동반되었다.

결 론 : 구인두암종에서 림프절전이는 매우 흔하며 주로 level II, III, IV의 림프절에서 확인되었다. 예방적 경부청소술시행시 동측의 level II, III, IV를 포함해야 하며 cN+인 경우 포괄적 경부곽청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.